

About My Work (연구 소개)

My research has dealt with modernity and social theory, liberalism-in-practice, comparative citizenship, Asian post-socialism, Asia's societal formation, etc. In these issues, I have tried to develop innovative theories, concepts, and analytical strategies for systematically comprehending the complex structures and transformations of Korea and East Asia in sociopolitical and developmental aspects mainly since the mid 20th century.

In particular, I have tried to overcome the (un)scientific condition that the realities of non-Western societies in the postcolonial era are still understood mainly in terms of their differences and/or distances from Western experiences, ideologies, and institutions that are normally accepted as the universal standards in the still West-centered world order, that such differences and distances are usually dealt with as targets for practical policy efforts rather than as subjects for objective (or positivist) scientific analyses, and that social life and order as indigenous realities, under the chronic deficiency of systematic explanations for their genuine nature, are summarily regarded as *West-reflexive anomalies*.

Relatedly, in coping with the chronically pervasive intersphere conflations and complications of social realities, I have tried to overcome the conventional disciplinary segmentations in the West-dominant social sciences and instead endeavored at original conceptualization and theorization based upon interdisciplinary and transdisciplinary problematization and at authentic analysis of social realities using such concepts and theories. I have actively collaborated with key scholars from diverse disciplines in various parts of the world, with my scholarly theses and impacts spreading well beyond sociology, into studies of political economy, development and politics, family and social policy, culture and media, and so forth.

Specifically, I have investigated and written on (1) "compressed modernity" in South Korea and other postcolonial societies, (2) "developmental liberalism" (in social policy) and "familial liberalism" (as practical order) as "liberalism-in-practice", (3) "developmental citizenship" and other types of "transformative contributory rights" in East Asia, (4) "developmental pluralism" as social institutional complexities and flexibilities of post-socialist developmentalism in China and elsewhere, and (5) the regional societal characteristics of Asian transnationalism.

Many of my research articles have been published in the academic journals in the US and Canada, the UK and other European countries (France, Germany, etc.), India, China, Japan, Singapore as well as South Korea, whereas I have published many authored and edited books with Polity Press (*The Logic of Compressed Modernity*, 2022; *The Risk of Compressed Modernity*, 2025), Palgrave Macmillan (*Developmental Liberalism in South Korea*, 2019; *Transformative Citizenship in South Korea*, 2022; *Developmental Politics in Transition*, ed with Ben Fine & Linda Weiss, 2012; *Neoliberalization of South Korea*, ed with Kim Se-Kyun & Keun Lee, 2025), Routledge (*South Korea under Compressed Modernity*, 2010; *Contested Citizenship in East Asia*, ed with Bryan S. Turner, 2012; *South Korea in Transition*, ed, 2014; *Developmental Citizenship in China*, ed, 2021; *Asianization of Asia*, ed with Kim Taekyoon & Lee Joonkoo, 2024), as well as Korean publishers, Changbi (가족, 생애, 정치경제, 2009) and Jipmundang (내일의 종언?, 2018/2023). My books on "compressed modernity" have been translated into Chinese and Korean

and are under translation into French and Arabic. I coedited *The Wiley Blackwell Encyclopedia of Social Theory* (5 volumes) in 2017, with Bryan S. Turner, Cynthia Epstein, etc., in which I also served as section editor of the modernity/coloniality/development section and the Asian society theory section.

장경섭 교수는 근대성과 사회이론, 비교시민권, 실행적 자유주의, 비교사회체제, 초국적 아시아화 등의 주제와 관련해 20세기 중반 이후 한국과 동아시아 사회들의 사회·경제·정치적 질서의 복합적 구조와 전환에 대한 고유한 이론, 개념, 분석방법을 개발하고 이에 의거한 구체적 현실 분석을 통해 세계적인 학술적 성과를 쌓아왔다. 장교수는 한국 등 탈식민시대 비서구 사회의 현실이 여전히 서구 중심 세계질서에서 보편 기준으로 설정된 서구적 경험, 이념, 제도와의 차이(difference)나 거리(distance)를 중심으로 이해되고, 그 차이나 거리가 실증과학적 분석 대상으로서보다는 주로 실천(정책)적 극복노력의 대상으로서 다뤄지며, 그 결과 토착 현실로서 시민생활과 사회질서는 고유한 성격에 대한 체계적 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종의 '준거(서구)대비적 변칙성(West-reflexive anomaly)'으로 치부되는 (물)과학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노력해 왔다. 특히 사회현실에 만연한 영역간 복합성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 구미 사회과학의 학문간 관행적 분업(분절)을 극복하여 적극적인 학제적·융합적 문제 설정에 기초한 독자적 개념·이론화와 이에 의거한 실증적 현실 분석을 시도해 왔으며, 사회학을 넘어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동아시아, 유럽, 북미 등 세계 각지에 걸쳐 중대한 학술적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장경섭 교수의 학술연구는 구체적으로 (1) 한국 등 탈식민사회들의 '압축적 근대성(compressed modernity)', (2) '실행적 자유주의(liberalism-in-practice)'로서의 '개발자유주의(developmental liberalism)' 및 '가족자유주의(familial liberalism)', (3) 동아시아권의 '개발시민권(developmental citizenship)'을 포함한 '변혁공헌권리(transformative contributory rights)'적 시민권, (4) 중국 등 동아시아 탈사회주의 개발체제의 사회제도적 복합성과 유연성으로서의 '개발다원주의(developmental pluralism)', (5) 아시아 지역의 급속한 전방위적 내부 교류와 통합에 따른 사회적 구조화(social structuration)로서 '아시아화(Asianization)'에 관한 고유한 학설과 분석으로 구체화되었다.

그 결과는 대다수가 세부 학문영역별로 세계 정상급 권위를 가진 (SSCI 등재) 국제학술지 논문 22편(공저 6편)을 포함한 89편의 국내외 정규 학술지 논문으로 출판되었고, 아울러 Polity Press, Routledge, Palgrave Macmillan, Wiley Blackwell 등 세계 핵심 사회과학 출판사들을 통한 영문저서(5권), 영문편저(단독 2권; 공동 4권), 영문 사회이론백과사전(전5권, 공편)과 국문저서(단독2권; 공동 3권) 및 국문편저(3권) 출판이 이루어졌으며, 영문저서 2편이 각각 중국어판 및 한국어·중국어·프랑스어·아랍어판 번역본으로 출판되었거나 출판 예정이다, 아울러, 수많은 국제 학술회의의 기조발표 (영국, 인도, 호주, 일본, 중국, 대만,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 및 특별 국제초청강연(독일, 프랑스, 미국, 중국, 모로코, 홍콩, 덴마크, 영국 등)을 수행하였다. (Google Scholar 피인용지수는 2025.8.27일 기준 자기인용 포함 3758회이며, 이는 거의 대부분 본인 단독 저술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학술적 성과와 기여를 바탕으로 장경섭 교수는 한국사회학회 저서상(2023), 한국사회사학회 최재석학술상(2021), 중국 单向街书店文学奖(2025),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2015) 등을 수상하였고, 2019년에 영국 University of Cambridge, Clare Hall (College)의 Life Member, 2022년에 서울대학교(본부) 석좌교수로 선정되었다.

+++++

장경섭 교수의 연구활동과 성과는 국내외 학계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성을 갖는다. 첫째, 장교수의 여러 학설과 분석은 단순히 한국 등 일부 지역에 대한 특수한 연구를 넘어 **세계 주류 사회(과)학계의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혁신을 선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여러 세계 정상의 사회학 석학들과 공동연구·출판 활동을 수행했다. 우선, 압축근대성은 최근 세계 비교근대성 논의를 주도하는 새로운 연구이며, (미국을 제외하면) 세계 최고 권위의 *British Journal of Sociology*의 2010년 비교근대성 특집호는 편집진(Ulrich Beck and Edgar Greande)의 Introduction에 이어 장경섭 교수의 2편의 글을 각각 리드논문과 사례논문으로 수록하였다. 압축근대성에 대한 장교수의 저서들은 범세계적 관심의 대상으로서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거나 번역 중이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하여 한국사회학회는 2023년 12월에 장교수의 *The Logic of Compressed Modernity* (2022) 저서에 대해 제24회 한국사회학회 저서상을 수여했다. 또한 한국·동아시아 시민권(citizenship)의 특질에 주목하는 개발시민권을 비롯한 변혁공헌권리로서의 시민권 등에 대한 장교수의 연구는 세계 시민권학의 아시아적 적합성을 모색·확립하는 결정적 가치를 인정받았고, 이 분야 세계 최고 학술지인 *Citizenship Studies*는 2012년과 2020년에 장교수를 한국과 중국에 관한 특집호 특별초청 편집인으로 위촉하였다. 나아가 장교수는 세계 최대 사회이론백과사전인 *The Wiley Blackwell Encyclopedia of Social Theory* (5 volumes, 2017)의 출간에 Bryan S. Turner (전)캠브리지대 석좌교수· (전)호주사회학회장, Cynthia Epstein (전)미국사회학회장 등과 함께 공동편집인으로 위촉되었고 그 핵심 내용인 modernity/coloniality/development 섹션을 책임편집하고, 나아가 Asian social theory 섹션을 제안하여 책임편집했는데 여기에 아시아 각국의 핵심 학자들로 하여금 주요 이론·개념들의 선정과 집필에 직접 참여토록 이끌어 아시아인에 의한 아시아 사회이론 정리를 도모하였다.

둘째, 한국과 동아시아에 대한 장교수의 고유한 학설과 분석은 일본, 대만, 싱가포르, 중국, 베트남 등에서 현지 학자들이 (서구 학문에 대한 일방적 의존을 벗어나) 자신의 나라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새로운 아시아적 학문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일본 교토대학(京都大学)의 경우에는 문부성의 학문·교육 세계화 장기지원사업인 인문·사회분야 Global Center of Excellence (GCOE, 2008-2012)의 국제비교 중심이론으로 장교수의 압축근대성론을 채택하였고, 이와 관련 장교수는 이 사업의 전체 국제회의(2009)에서 특별 기조강연을 하고 그 주요 연구결과인 영문서 2권의 리드챕터를 작성했다. 중국의 핵심 대학인 청화대학(清华大学)과 절강대학(浙江大学)이 연계된 특별 학술번역 사업은 압축적 근대성에 대한 장교수의 저서 *South Korea under Compressed Modernity* (2010) 및 *The Logic of Compressed Modernity* (2022)의 각 중국어판인 <壓縮現代性下的韓國>(2024)과 <壓縮現代性的邏輯>(2025)를 번역출판했으며, 신작 *The Risk of Compressed Modernity* (2025)도 이미 번역출판 계약이 체결되었다. <壓縮現代性下的韓國>의 경우, 중국에서 전국 서적인들의 추천에 기초한 핵심 출판·문학상인 单向街书店文学奖의 2024년도 작품상(공동)을 수상했다. 또한 프랑스 학술지 *Temporalités*의 경우, “‘Compressed Modernity’ and Chinese Temporalities” 주제의 2017년 특집호에서 편집진(리옹대학 Laurence Roulleau-Berger, 북경대학 Liu Neng)이 Introduction에서 장교수의 압축근대성론을 소개하고 이 학설의 중국 탈사회주의 전환 과정에 대한 적용 필요성을 설명하고, 장교수의 “China as a Complex Risk Society”를 비롯해 8편의 각국 학자에 의한 사례분석 논문을 수록했다.

셋째, 장경섭 교수의 압축근대성, 개발시민권 등에 관한 연구는 최근 세계 전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한국학(Korean studies) 분야의 연구·교육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있다. 한국학 가운데, 특히 한류 등 대중문화 연구, 가족·개인 연구, 사회문제·정책 연구, 정치·매체문화 연구 등에서 장교수의 연구성과가 세계 여러 대학의 연구와 교육에 널리 반영되고 있으며, **수많은 학위논문 주제나 소재로 활용되어 왔다**. 관련하여, 독일 베를린대학교에서 편집되는 학술지 *Korea Europe Review*는 장교수의 저서 *The Logic of Compressed Modernity* (2022)에 대한 북심포지움 특집호(2023.12)를 출판했으며, 여기에 미국, 영국, 인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학자의 리뷰 논문과 장교수의 응답 논문이 발표됐다. 또한 미국의 코리아 소사이어티(The Korea Society)는 2023년 2월 장교수를 초청해 *The Logic of Compressed Modernity*(2022) 저서에 대한 특별 저술강연(웹캐스트)을 실시했으며, 신작 *The Risk of Compressed Modernity*(2025) 저서에 대해서도 다시 특별 저술강연을 초청해 2025년 10월에 실시된다.

넷째, 장경섭 교수는 이상과 같은 국제적 학술활동과 병행해 국내에서의 (국문) 학술논문·저서 출판 및 학술발표도 활발히 수행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내 사회(과)학과 세계 사회(과)학의 유기적인 상승발전을 도모해 왔다. 장교수는 **한국의 역사·사회적 현실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사회(과)학계의 세계주의적 전환(cosmopolitanization)에 기여할 수 있는 이론·개념·분석을 제시하기 위해** 해외출판 논문·저서들에 국내 사회(과)학자들의 연구성과를 풍부하고 면밀히 반영했을 뿐 아니라, 해당 연구내용들에 관련해 국내 동료학자들의 평가, 조언, 참고,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꾸준히 국문의 학술 출판·발표를 수행해 왔다. 장교수의 국문 저서 <가족·생애·정치경제: 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2009)와 <내일의 종언? 가족자유주의와 사회재생산 위기>(2018)는 가족·젠더·인구·복지 연구자들에게 중대한 영향력을 미쳐왔고 수많은 관련 연구활동을 촉진시켰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사회사학회는 2021년에 장교수의 <내일의 종언?> 저서에 제2회 최재석학술상을 수여했다. 아울러 장교수는 근대성, 시민권, 생활세계, 개발정치 등에 대한 다수의 국제회의 개최 및 영문편저 출판을 통해 세계 석학들과 국내 주요 사회(과)학자들 사이의 학술적 교류·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한국 사회(과)학의 세계주의적 전환을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 또한 전북대학교의 교육부 지원 Social Science Korea (SSK) 사업 “개인기록과 압축근대” 연구단(2011-17; 단장 이정덕)이 압축근대성론을 중심 이론으로 채택하였고, 장교수는 이 사업의 국제학술회의 및 연구총서 출판에 참여했다.

앞으로 수년간 장교수는 세계적 아시아 시대의 사회(과)학적 보강을 위해 특히 매진할 계획인데, 첫째, 압축근대성, 아시아적 시민권, 실행적 자유주의 등 고유 연구주제들의 아시아권 공동연구 추진하고, 이로써 아시아 사회현실 분석의 세계 사회과학적 주류화를 더욱 촉진하고, 둘째, 21세기 들어 급가속중인 아시아권의 산업, 노동, 문화, 교육, 환경 등의 상호 영향·교류·통합 추세, 즉 ‘초국적 사회구성체’로서 아시아의 변화를 혁신적 사회(과)학 의제로 삼아, 그 개념·이론적 기초를 확립하고 구성적 내용을 규명하는 작업을 국내외에서 선도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관련학자들과 공동편저, *Asianization of Asia* (Routledge)를 2024년에 출판했으며, 개인 저서로 *Asia In Asianization: The Rise of a Continental Society* (Polity)를 집필 중이다.